

김준성 3선 안갯속...정관계 인사 도전장

영광군수

영광군수 선거는 김준성 현 군수의 3선 여부에 초점이 모이는 가운데 전 군수·도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를 꺾고 당선됐던 김 군수가 이제는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이 되면서 과거 행보가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군수는 안마도 일원에 528MW 규모의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 백수읍 하사리 일원의 '초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 '군민 햇빛발전소' 등을 추진해 영광을 지역 균형 뉴딜 전초기지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그러나 1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이나 소각장 증설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와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군정 앞마당에 설치된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영광 SRF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으로부터 2018년 2월과 지난해 1월 23일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2020년 5월 착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영광군은 사업자 측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김 군수의 대항마로는 강종만 전 군수, 한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세일 전남도의원 등이다.

강종만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지만, 2008년 관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내년 2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영광군과 전남도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한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지방부이사관)도 군수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사무처장은 영광 낙월면장,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사회재난과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고, 한국자치학회 부회장과 한국 지방자치학회 이사, 행안부 지방재정부

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준성



강종만



이동권



장세일



한동희

담심의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3선 도의원을 지낸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은 기획사회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세일 전남도의원은 제7대 영광군의 회 운영위원장, 자치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다.

현역 프리미엄과 3선에 대한 피로감을 놓고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선우·영광=곽윤순 기자

민주당 경선·무소속 본선 '오리무중'

구례군수

구례군수 선거는 김순호 현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한 무소속 후보들도 한판승부를 버리고 있어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김순호 현 군수와 박양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신동수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 왕해전 구례포럼 대표, 정현택 전 구례군 사무관 등이 출마한다.

김순호 현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큰 잡음 없이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섬진강 범람에 따른 최악의 홍수 피해 속에서도 안정적인 군정을 펼쳐 피해를 조기에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박양배 구례지속발전연구소 대표는 예코관광을 재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광·문화·스포츠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동수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구례관광대학 설립 등 잠심한 공약을 내걸고 젊은 열정과 함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구례를 만들겠다는 '40대 새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김순호



김승식



박양배



신동수



이창호



왕해전



정현택



최성현

왕해전 구례포럼대표는 수해극복 대책본부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다졌다. 그는 중앙예산을 끌어오고 구례를 우물밖으로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한다.

구례군 공무원 출신 정현택 전 사무관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정 전 사무관은 다양한 부서에서 주 민과 소통하고 면장을 지내면서 쌓은 탄탄한 인맥이 강점이다.

최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승식 구례군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출마를 선언했다. 탄탄한 지역 기반과 인지도가

강점이며, 재선 군의원에게 지역 현안에도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호 전 도의원은 농민활동을 하면서 지역 곳곳을 세세히 잘 알 뿐만 아니라 군의원, 도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에 강점이다. 수해 배상 요구 삭발까지 단행하며 군민들을 대변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성현 전 구례군 부군수는 40년 공직 생활로 쌓은 넓은 인맥과 경제·투자유치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군민회합과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구충곤 군수 불출마 선언...선거판 요동

화순군수

재선인 구충곤 현 군수가 3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될 화순군수 선거전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해 12월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선거보다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수 선거전에는 지방의원과 관료 출신, 현직 공무원 등 10명 안팎이 뛰어 들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정 공무원 출신인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9대에 처음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후 11대에는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은 화순군의원 재선과 10·11대 도의원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두루경험한 점과 지역 조직이 탄탄한 것이 강점이다.

문 의원은 전국노인회 전남도연맹 사무처장,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순팔



구복규



문행주



민병홍



윤영민



이인근



임갑수



조재운

3,4,5대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민병홍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도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화순군의원들도 '체급'을 높여군수선거전 참여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10명의 군의원 가운데 강순팔, 윤영민 의원 등은 군수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전·현직 공무원들 중에는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 소장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다. 민선 5기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임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출마 의사를 밝힌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이인근 전 목포부시장은 1985년 21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진도부군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냈다.

보성군수

보성군은 현직 김철우 군수의 재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것이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자전 타전으로 임영수 전남도의원과 가톨릭상지대 교수 출신의 변재면 농학박사가 군수에 재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찌감치 군민 대 통합을 외치며 인사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군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철우 군수는 30대에 최연소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정치에 입문 후 민주당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정통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 시절부터 토박이 군수가 당선돼 지역의 현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김철우 군수는 민선 7기를 통해 군민들에게 행정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군수 부재와 함께 오랜 선거 후유증으로 흐트러지고 갈라진 공직사회 내 갈등을 원만하게 봉합했고 공직 청렴도 역시 취임 후 매년 1단계씩 상승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앙인맥을 기반으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 지역



김철우



변재면



임영수

이에 군의원 4선과 재선 도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영수 도의원이 당내 경합을 통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군수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임 도의원은 보성정년회회장장과 광주상고 총동문회 보성지회장 등 폭 넓은 지역 활동을 통해 신망이 두텁고 위기 때마다 금메달을 목에 건 6선의 지방선거의 귀재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지난 총선 당시 현 김승남 국회의원을 지지한 몇 안되는 지역인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임 의원은 "일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거짓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군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군의원도 도의원 선거에서 각각 한차례씩 무투표로 당선될 정도로 지지기반에서 인심이 두텁다.

도의회에서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수 정당 지역구 간부 출신이라는 점과 잦은 민주당 탈당 전력이 민주당원의 정통성 시비와 함께 당내 후보 경선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당이 어려웠던 지난 2016년 민주당 탈당 경력은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성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합격한 인재로 알려진 변재면 박사는 2018년 무소속으로 보성군수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오랜 타지 생활과 평소 지역과의 소통도 부족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군수선거에 출마했지만 득표율이 약 2.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공천 없이 당선권에 근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판단이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기반 탄탄' 무소속 송귀근...민주당 도전

고흥군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송귀근 현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고흥지역 자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2명이 본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송귀근 현 군수의 수성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현재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주장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

이어서 향후 이들의 선택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선에 나선 송귀근 현 군수,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전 원장, 박진권 전남도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귀근 군수는 행정전문가로서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1,000억 원 이상, 중앙정부 각종 공모사업 168건 4,022억 원을 확보, 2022년 총예산 8,045억. 내년 까지 추경 등을 포함 1조973억원이 확보 가능한 실적을 토대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군민소통을

기조로 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공약 진척도 90%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들고 잘사는 고흥, 새로운 고흥발전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재선 도전에 나섰다. 고래대를 졸업, 행정고시에 합격해 광주광역시 행정부지사와 국가기록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선거에서 고베를 마신 공영민 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정치부심, 인지도를 장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본 경선에 자신감을 보이며 전력을 쏟고 있다. 공직근무 경력을 살려 나후회 고흥발전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마련, 가고 싶은 고흥, 살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기획재정부 23년,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제8대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정치초년생인 박진권 현 전남도의원은 젊은 패기를 앞세워 고흥정치가 군민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흥에서 나고 자란 고흥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젊은 층을 상대로 세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 선대를 졸업했다.

한편 불공정 민주당 경선이었음을 주장하는 김학영 전 경찰서장은 전남대 졸업, 7급 공채 전국 수석, 행정고시 합격, 전남도청, 국회사무처,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등 다양한 근무경력을 갖추고 있다.

송영종 전 춘천부시장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영국버밍엄대 석사, 전남도투자정책국장 등을 역임

고흥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기획재정부 23년,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제8대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정치초년생인 박진권 현 전남도의원은 젊은 패기를 앞세워 고흥정치가 군민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흥에서 나고 자란 고흥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젊은 층을 상대로 세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 선대를 졸업했다.

한편 불공정 민주당 경선이었음을 주장하는 김학영 전 경찰서장은 전남대 졸업, 7급 공채 전국 수석, 행정고시 합격, 전남도청, 국회사무처,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등 다양한 근무경력을 갖추고 있다.

송영종 전 춘천부시장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영국버밍엄대 석사, 전남도투자정책국장 등을 역임



송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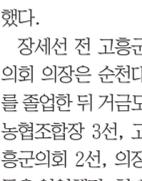
공영민



김학영



박진권



송영종



송형근



장세원



장세원

/전남취재본부=진중연 기자